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서 '제동'

환경도시위, "도민 공감대 부족" 어제 '부결' 결정
"부결 사유 검토, 도민 의견 수렴해 대안 제시" 요구

7일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중산간 난개발을 막겠다며 고안한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이번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부결 사유를 나열했다. 부결 사유로는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받지 못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 ▷동일 용도 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데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중산간지역에 대해 타 조례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

송 위원장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해 "부결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등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사에 앞서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공감대 형성 미흡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의회가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도민의견을 대조해보면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개정이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제도라도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공익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나 과도한 사적재산권 침해"라며 "(표고) 300m 이상에서 절·상대(보전지역) 등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조례의 맥락과 기조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하지만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표고 300m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단순 표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데다, 하수도 (포화) 문제를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다혜기자

"제2공항 군사기지화 절대 반대"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공동입장문서 주문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7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 통보에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각 추진절차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 다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입장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민 합의를 위한 구체성 있는 해결 방안이나 군사기지화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통보 이전에 제2공항 진행 사항을 살피는 노력도 더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회=부미현기자

2공항 평가기관 생태계 보전 부정적 의견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립생태원 검토의견 공개
"환경부서 국토부에 '묻지마 동의' 해준 것" 비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렸지만,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기관은 "조류 보호 방안,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보전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과를 밝히며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립생태원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 조류 보호 방안,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보전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따라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태원은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 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환경부가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안 빠진 업무보고… 교육부 공모 무관심"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업무 보고 자료 부실 지적
고등평생특별회계 신설 따른 재정 대책 마련 주문도

양홍식 의원

김황국 의원

오승식 의원

3월 1일 자 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 이후 처음 마련된 제주도의회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정작 교육 현안이 빠져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도교육청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이뤄진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요 업무 보고 자료가 두 권인데 가칭 '서부중학교' 등 현안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어까지 똑같다"며 자료 부실을 꼬집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도 "일반 업무 보고 외에 예체능 학교, 서부중, 유아체험교육원, 대안학교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있더라도 한 줄, 두 줄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공모 사업에 무관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홍식 의원은 "기존 돌봄교실을 업그레이드하고 제주형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공모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고,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교육부가 2025년 늘봄학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 관내에서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은 "늘봄학교 공모 신청은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여건에 맞게 24개 학교에서 저녁돌봄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교육부의 2023년 미래교육지구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 등 3개 시도만 지정되지 않았다며 "교육지원청에 질의했더니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14개 시도 33개 교육지원청이 선정된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교육 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초·중·고 예산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도 거론됐다. 오승식 의원은 "특별회계법이 3년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 부교육감은 "제주는 240억원을 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감액추경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진선희기자

이사장 추대 공고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는 나를 뛰어 넘어 이웃과 사회를 수용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써, 명상수련과 상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센터는 제7대 이사장을 추대 공모하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많은 분들의 응모와 추천 바랍니다.

① 제출기간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imcjeju2313@daum.net, 방문접수 우편접수(제주시 명림로 214-13, 우편번호 63313), 문의 : 064-753-2313

③ 제출서류
이력서

④ 지원자격
- 명상센터에 애정이 있는 분,
- 상담과 명상에 전문성을 갖춘 분,
- 명상센터의 재원 창출 능력이 있는 분.

(사)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청주좌씨종문회 총본부 정 기 총 회

만물이 움트는 새봄을 맞이하여 종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청주좌씨종문회 총본부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3년 3월 11일(토) 11:00**
■ 장 소 : **제주바다만찬**(양식수협 건물) (제주시 연삼로 166)
■ 안 건 : 1. 임원개선
2. 예산결산 및 편성 심의
3. 종친회 재산 관리 방안 등

※ 참고 사항
1.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 참석 예약 받습니다
2. 2018년 발간 (제4판) 족보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필요 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연 락 처 : 010-3692-1629

청주좌씨종문회 총본부
회장 좌남수

귀일중학교총동창회 2023년도 정기총회

만물이 움트는 새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동문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18시 30분**
- **장소 | 도두 노팅힐웨딩컨벤션 [2층]**
- **의안**
  1. 회무 보고
  2. 결산 보고
  3. 202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임원 선출
- **연락처**
  - 회장직무대행 **고태영 010-8216-7621**
  - 사 무 국 장 **변성언 010-3693-1264**

귀일중학교총동창회
회장 직무대리 고 태 영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힘/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